

↑ 코스피 2463.35 (+0.73)	↓ 코스닥 815.76 (-0.75)
↓ 금리 (미국 9년) 3.726 (-0.048)	↑ 환율 (원-달러) 1299.40 (+2.50)



주총시즌 '행동주의 펀드' 두 얼굴 소액주주 가치 증대 VS 단기차익 노린 먹튀

최근 주식 시장에서 행동주의 펀드의 활동이 늘어나면서 소액주주들의 권익 향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경영권 분쟁 등의 과정에서 주가가 크게 등락해 개미 투자자들의 무덤이 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소액주주의 권익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운 행동주의 펀드로 인해 기업 가치가 제고돼 주가가 대체로 상승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단기 이익을 위해 기업을 공격하거나 경영권 확보에만 열을 올리는 과정에서 주가 상승의 과실만 챙겨 떠나면서 주가급락 등의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행동주의 펀드의 두 얼굴적인 형태가 드러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유직임으로 인해 그 대상이 된 기업들의 주가는 대체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KB증권이 행동주의 펀드의 대상이 된 기업들의 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SM엔터테인먼트, BYC, SK 등 16개 종목은 지난달 말까지 코스피 지수 대비 평균 15.95%포인트 초과수익률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SM과 오스텝임플란트의 주가는 크게 상승했다.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얼라인)이 작년 2월 21일 SM의 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환원 등 주주 제안에 나선 후 SM의 주가는 이날 기준 109.60% 올랐으며, 오스텝임플란트는 지난 1월 16일 강성부펀드로 알려진 KCGI가 거버넌스 선진화 방안을 담은 주주서한을 보낸 이후 거래정지 전인 2월 27일까지 34.21% 상승했다.

김준섭 KB증권 연구원은 "정기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행동주의 캠페인이 시작되면서 대상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환원에 대한 기대감으로 국내 투자자들의 관심이 급증했다"며 "특히 행동주의 캠페인에 영향받은 일부 기업들은 주주제안을 일부 수용하면서 견조한 주가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시장에서는 행동주의 펀드가 건드린 종목들이 하나의 테마주로 작용하고 있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하고 나면 나중에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가 많아 일반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기 일췌이다.

지난달 19일 SBS는 얼라인이 지분을 매입했다는 소식이 주가가 급등했다가 이후 얼라인이 공개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 없다고 밝혀 주가는 10% 넘게 급락했다. 그러나 얼라인이 비공식적으로 추천한 사외이사가 SBS 주주총회 선임 안건으로 오르자 주가는 다시 상승했다.

(4면에 계속)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유통가, 사명교체 바람... 신사업 육성 '빅픽처'

롯데제과, 56년 만에 새 사명 추진 사업 다각화로 종합식품기업 도약 매일유업도 신사업 확장 위해 검토

공격적으로 사업 다각화에 나서고 있는 식품업계가 '빅픽처(bigpicture)'를 위해 사명 변경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롯데제과는 롯데웰푸드 사명을 바꾸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사명에서 제과를 빼는 것은 지난 1967년 설립 이후 56년만이다.

롯데제과는 지난해 7월 롯데푸드와 합병 이후 사명 변경을 지속적으로 검토해왔다. 롯데제과란 이름은 고신격호 명예회장이 설립한 롯데그룹의 모태기업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높지만 롯데푸드와 합병 후 종합식품기업으로 도약하면서 사업다각화를 추진하는 데에는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

어, 사명 변경에 대한 의지가 커진 것으로 보인다.

롯데제과 측은 "롯데제과와 푸드가 합병하면서 사업군이 넓어졌다"며 "롯데제과란 기존 사명으로는 신사업들을 품기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런 점에서 사명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명 변경은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 확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롯데제과는 본업을 넘어 제빵, 육가공, 차세대 먹거리 발골 등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8월에는 캐나다 식용 곤충 제조기업 아스파이어푸드 그룹(Aspire food Group)과 대체단백질 사업의 전략적 파트너십 업무협약을 맺고 100억원 가량 투자했다. 비건 브랜드 론칭도 계획중이다. 지난해 12월 자사 식물성 식품 라인을 강화

하고 비건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겠다는 의도로 특허청에 상표권 출원까지 신청했다.

매일유업도 사명 변경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기존 우유·분유 비중을 줄이고 디저트·대체유·단백질 등 신사업 분야로 확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매일유업 측은 "사명변경을 검토해오고 있는 사안이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나온 것이 없다"고 밝혔다.

매일유업은 유업 의존도를 줄이고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있다. 실제로 지주회사 매일홀딩스의 매출 기준 유가공부문 비중은 2018년 83%에서 2021년 71%로 하락했다. 대신, 단백질 보충식품 '셀레스'와 '아몬드브리즈' '어메이징오트' 등 식물성 음료시장 발굴에 주력하고 있다. (2면에 계속)

/신원선 기자 tree6834@

행동주의 펀드 활동 기업 47개사 증시 부진으로 대상기업 더 늘듯 기업가치 제고로 수익률 상승세

테마주 작용, 단기간 주가 등락 일반 투자자들 대거 손실 우려도

7일 KB증권에 따르면 행동주의 펀드의 활동 대상이 된 기업은 지난해 47개사로 2017년 3개사에 비해 급증했다. 올해는 경기침체, 증시 부진으로 대상기업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증권가에서는 3월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행동주의 펀드와 소액주주가 결합, 주주제안을 주총 안건으로 상정하는 상장사 수가 올해 50여개사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24일까지 경영참여, 주주권의 향상 등을 전제로 한 주주제안을 정기 및 임시 주총 안건으로 올린 상장사는 17개사로 집계됐다.

에스엠(SM엔터테인먼트)를 비롯해 ES큐브, 휴마시스, 유니캠, 디씨엠, 어반리튬, 한진칼, 디엔에이링크, 사조산업, 광주신세계, 지더블유바이텍, 대원강업, 국보디자인, KB금융, 하이록코리아 등이 주총에서 주로 배당 확대와 자사주 매입·소각, 이사·감사 선임이나 해임 등을 주주제안으로 올릴 예정이다.

이러한 행동주의 펀드의 적극적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를 방문해 학생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재용 "젊은 기술인재가 제조업 원동력"

(삼성전자 회장)

경북 구미 마이스터高 방문 "혁신 책임질 기술인재 항상 응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미래 동행'을 이어갔다. 이 회장은 7일 경북 구미에 있는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를 방문했다. 인재 육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무게를 두는 행보이다.

구미공고는 전문기술인력을 육성하는 마이스터고등학교다. 전자과와 메카트로닉스와 등 2개 학과를 운영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주요 관계사에서 숙련 기술 인재로 활약하는 임직원 2000여명을 배출한 명문이다.

이 회장은 'PCB(전자기기용 인쇄회

로기판)' 설계 수업을 참관하고, 학생들과 간담회를 통해 관심 산업 분야와 기술인재로서의 꿈을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이 회장은 "젊은 기술인재가 제조업 경쟁력의 원동력"이라며 "현장 혁신을 책임질 기술인재들을 항상 응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오랫동안 기술인재 육성을 통해 제조 경쟁력을 높이는데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쏟아왔다.

2006년 상무로 재직할 당시 일본 기업을 방문했다가 핵심 공정 인력들이 국제기능올림픽과 일본 내 기능대회 수상자 출신임을 확인하고 깊은 인상

을 받았던 것.

당시 이 회장은 "삼성이 앞장서서 우수 기술 인력이 우대받고 존경받는 문화를 만들어 가야 기업도 성장하고 국가도 발전할 수 있다"며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우수 기술인재들을 양성하고, 이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꿈과 희망을 갖는 일을 해 보자"고 제안했다. 기술인재 육성 행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한편 이 회장은 구미전자공고 방문에 앞서 구미에 있는 '스마트 시티'를 찾아 갤럭시 S23 제조현장을 점검하며 '미래 동행' 행보도 이어갔다.

/김재용 기자 juk@

뉴스터뷰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윤석열 대통령, 16~17일 방일 정상회담 부상
▲ 한미연합 비상활동주로 이착륙 훈련 실시... 韓 C-130, 美 A-10 등 참여 /사진 뉴시스

▲ 北외무성 "한미 연합훈련... 핵전쟁 현실화 단계 경고"
▲ 국민의힘, 16일 정책의총서 선거제 개편안 논의



▲ 대통령실 전대 개입 의혹... 김기현 vs 안-천-황 대립 격화 /사진 뉴시스
▲ 검찰, 이재명 조만간 재판 넘길 듯... '은닉 혐의' 김민배도 곧 기소